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2011. 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2011. 1

최진욱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교덕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임순희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전성훈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진하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박형중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임강택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전현준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한기범 (통일정책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전반적 특징	1
II. 2010년도 평가	5
1. 정치	5
2. 경제	6
3. 사회·문화	7
4. 군사	7
5. 대남	7
6. 대외	8
III. 2011년도 과업	9
1. 정치	9
2. 경제	9
3. 사회·문화	12
4. 군사	13
5. 대남	14
6. 대외	15

IV. 2011년도 부문별 전망	16
1. 정치	16
2. 경제	17
3. 사회·문화	18
4. 군사	19
5. 대남	21
6. 대외	24
V. 정책적 함의	25
<부록> 2011년도 북한 신년 공동사설	28

북한은 2011년 1월 1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를 통해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공동사설을 발표

I. 전반적 특징

- 금년 신년 공동사설의 핵심 단어는 ‘경공업’, ‘인민생활 향상’ 그리고 ‘강성대국건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슬로건과 구호가 줄어들고 실용적 언어가 강조됨에 따라 힘이 약하고 수세적인 것이 특징임.
 - 사상적 일색화, 집단주의 등의 단어가 등장하지 않음.
 - 2010년 ‘사상분야에서 총공세’가 강조되었으나 2011년 이에 상응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내 정치적으로 경각심과 경계심을 고조시키는 문장이나 단어가 강조되지 않음.
 - 2010년의 경우,
 - * 사회주의넷이 살아 맥박치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상잔재와 이색적인 생활풍조가 추호도 허용될수 없다.
 - *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 신년 공동사설은 올해의 성격을 “인민생활대고조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의 해”로 규정하여 2012년을 준비하는 해로 설정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주민 노력동원이 예상됨.
 - 내년 김일성 탄생 100돌(강성대국건설의 해)을 “최상최대의 명

절”로 맞이하고 “김일성조선 100년사를 총화”하기 위한 “총진군, 총공세”를 선동함.

- 정치적으로는 후계자 김정은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은 채 김정일 중심으로 서술되는 등 김정일의 통치권이 유지되고 있음을 과시함.
 - “21세기의 새로운 연대들도 로숙하고 세련된 김정일정치의 위대한 승리의 년대로 계속 빛날 것”임을 강조함.
 - 지난해 실적으로 김정일의 ‘강행군현지도’ 성과와 중국방문을 통한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강조함.

- 그러나 작년에 “특기할 정치적 대경사”로 “계속혁명의 근본담보가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김정은 후계자 등장 이후 ‘혁명의 계속성’이 강조됨으로써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김정은이 김정일·김경희를 동행하여 일선 생산현장을 빈번히 방문함으로써 ‘경공업 혁명’ 나아가 ‘경제강국 건설의 치적’을 권력세습 정당화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
 - 김정은은 올해 정치국 상무위원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가능
 -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추대 20돌(2011.12.24)이 되는 연말쯤 김정은에게 원수칭호 부여와 함께 그를 최고사령관에 추대할 가능성
 - * 지난 2010.12.24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9돌 경축연회에 김정은 및 군 고위간부들과 함께 김정일이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은 그간 김정일의 ‘군 지휘 업적’을 찬양하고 군 지휘권을 점차 김정은에게 이양하기 위한 수순일 가능성이 있음.

- 군대보다는 당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서술 주축이 변하는 등 김정일 이후를 대비한 당의 역할 강조가 두드러짐.
 - 본문에서 서술의 순서가 2010년 ‘군대 이후 당’에서 2011년 ‘당 다음에 군대’로 바뀌었음.
 - 종결 슬로건이 바뀌었음.
 - * 2010년 공동사설에서 사용된 “혁명의 수뇌부” 대신 “당중앙위원회 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신심 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나가자.”

- 올해에는 당과 군에 대한 조직·사상적 장악력 강화와 함께 “선군 혁명의 새시대”에 부응한 체제면모 일신을 예고하고 있음.
 - 당의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와 군의 “유일적 령군체계” 수립을 위한 정치사업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
 - “선군혁명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일신” 주장

- 대남부문의 기조는 작년과 거의 다름없는 것으로 평가되나 남북관계의 긴장 책임을 “남조선 보수당국”에 전가하면서 우리 사회에 “평화수호 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북남 사이에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내부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대남 유연을 가장하였음.
 - 반면 북한 군대에 대해서는 “고도의 격동태세 견지”를 주문하면서 전투훈련을 지속 강화할 것임을 시사

- 대외적으로는 작년에 김정일의 2차례 방중 의미를 “조선혁명의 유리한 환경 마련”으로 평가하고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에 맞설

것임을 주장하면서도 “비핵화 실현 입장”을 밝힘으로써 강온양면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함.

- 작년과 달리 평화체제나 미·북 대화의 공세적 모습은 보이지 않음.

II. 2010년도 평가

1. 정치

- 공동사설은 2010년에 ‘김정은 후계자 등장’을 ‘정치적 대경사’로 규정하고 혁명의 계속을 위한 전도가 탄탄해졌음을 강조하였음.
 - * 민족사에 특기할 정치적 대경사를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혁명의 양양한 전도와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되었다.
- 아울러 후계문제와 관련하여 이것이 ‘계속혁명’을 위한 ‘김정일의 의지’임을 분명히 하여 이의 제기나 반대를 원천봉쇄하고 있음.
 - * 당대표자회정신은 ... 위대한 당을 받들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계속혁명의 정신이다. 현시기 우리 당건설과 활동은 이 정신을 출발점으로 하여 전개되어야 하며 그것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 9월에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에 대해서는 ‘당의 령도적 권위’가 제고되는 ‘계기’로 평가하였음.
- 그러나 김정은 후계자 등장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위대성에 대한 극찬이 지속되었음.
 - * 지난해는 강성번영의 웅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김정일 동지의 특출한 령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과시된 력사적인 해였다.
- 김정일 건강문제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동사설은 김정일의 왕성한 현지지도를 높이 평가하였음.
 -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2010년 대고조 령도실록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행군현지지도로 수놓아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년초부터 온 한해동안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온 나라의 대고조전투장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면서 당조직들과 일군들을 발동하고 군민의 정신력이 최대로 폭발되도록 하시였다. 모진 강추위와 무더위, 폭우와 눈보라를 헤치며 불철주야의 현지도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따라 혼연일체의 천만대오가 일떠서고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 이 거세차게 타올랐다.

2. 경제

- 북한은 지난해 주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의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함.
 - 경공업과 화학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공업부문들에서 현대화가 추진되었고,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열렸다고 주장함.
 - 또한 “최첨단돌파전의 불길드높이 정보기술, 핵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혁혁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역설함.

- 이외에도 경제부문의 주요 성과로, 대계도간석지 및 례성강청년2호 발전소 건설과 김일성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의 ‘개변’ 등이 제시됨.

3. 사회·문화

- 정보기술, 핵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김일성종합대학과 함흥화학공업대학을 비롯한 인재양성 기관들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편되었다고 평가함.
- 군중문화예술의 발전 및 사상예술성이 있는 문학예술작품들의 창작은 사회주의문화강국인 북한의 큰 자랑이라고 평가함.
 - 특히 경희극 《산울림》이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문학예술작품이라고 함.

4. 군사

- 군사 관련 평가는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있게 진행된 당창건 65돐 경축행사” 등으로 “일심단결의 위력과 무적필승의 군력을 세계의 면전”에서 뚜렷이 보여주었다는 정도로 언급함.
- 선군대고조 사업을 위한 인민군대의 핵심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이 강조됨.

5. 대남

- “지난해에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힘차게 전진”하였고 자평함.
 - “북과 남, 해외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30돐을 뜻깊게 기념함으로써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망을 힘있게 과시”하였고 평가하며, ‘자주통일의지’가 더욱 강렬해졌다고 주장함.

-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한 남북 긴장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일정수준에서의 부분적인 남북교류가 있었음을 인정함.
-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인도주의 사업이 진행된 것과 전쟁방지를 2010년의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함.
 - 북한 당국의 “선군정치와 인내성있는 노력의 결과”로 자찬
 - 반면 우리 당국이 “전쟁하수인, 반통일대결광신자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비난
-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가로막는 반통일 외세 의존 세력으로서 한국의 보수정권을 규탄하며 남북 및 해외 민족의 민족자주의 원칙에 의거한 반대운동으로 격퇴해야 한다고 주장함.

6. 대외

- 작년 11월에 공개한 실험용 경수로 건설과 원심분리기 시설을 선군의 기상을 세계에 떨친 성과의 하나이자 첨단과학기술분야인 핵기술, 정보기술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라고 강조함.

Ⅲ. 2011년도 과업

1. 정치

- 당대표자회 이후 확립된 ‘당의 령도체계’ 즉,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음.
 - * 정치와 군사,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전당을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 하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령도자의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결사관철의 전위대오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

- 향후 당 사업에서 강도 높은 사상투쟁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고 있음.

- 2011년에도 강성대국 건설을 주민동원의 모토로 삼고 이에 대한 다양한 동원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 *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을 드세차게 벌려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여야 한다.

2. 경제

-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경제부문의 과업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증산을 통해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자는 지난해 신년 공동사설과 같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국가적인 정책 목표로 인민생활의 향상이라는 ‘민생경제’부문을 최우선 순위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지난해와는 달리 경공업부문의 발전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 올해를 ‘경공업의 해’로 강조하면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경공업, 특히 소비품 생산 증대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총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함.
 - 또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경공업 공장과 기업소의 생산 정상화, 소비자 수요 충족, 경공업의 현대화와 과학화, 지방공업의 발전, 경공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원료·자재의 주체화·국산화 등을 제시함.
- 경공업에 대한 강조로 인하여 다른 산업부문에 제시된 과업들은 단순화되었으며,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는 문제와 연관해서 제시됨.
 - 지난해 4대선행부문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금속부문은 뒤로 밀리고 석탄생산 증대가 최우선적으로 강조됨. 이는 석탄 생산 증가를 통한 비료(주체비료)와 섬유(주체섬유) 그리고 전력의 증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됨.
 - * 지난해에는 “강재와 나와야 쌀도 나오고 기계도 나온다”고 역설한 데 반해 올해는 “석탄이 팡팡 나와야 비료와 섬유도 쏟아지고 전기와 강재도 나온다”고 주장함.
 - 이와 함께 화학공업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도 지난해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경공업혁명은 곧 화학혁명이다”고 역설하면서 화학공장의 생산 정상화를 통해서 섬유와 수지, 각종 기초화학제품들, 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함.

- 농업부문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지만 지난해 비해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한참 밀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공업부문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강조되던 지난해와는 달리 4대선행부문 뿐만 아니라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언급 이후에 거론됨.
 - 다만,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다”고 강조하면서,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역설한 것에 비추어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는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최첨단돌파전을 계속 심화”시켜가자고 강조함.
 - 특히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고 과학기술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

- 대외경제관계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이 자력갱생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서 올해 대외개방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엿보이게 함.
 - 특징적인 것은 자력갱생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원료도 해결하고 자금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임.
 - 외화획득을 위한 자원개발을 보다 확대할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경제관리 개선부문에서도 규율을 지켜야한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하고 있어서 올해 경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 제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3. 사회·문화

- 교육부문에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북한을 세계적인 인재대국으로 만들어야 할 것을 강조함.
- 문학예술부문에서 사상적 대, 정책적 대가 뚜렷하고 현실에 발을 붙인 시대의 걸작, 사회주의교양의 교과서와 같은 명작들이 다량 창작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함.
- 보건부문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의학과학을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무상치료제의 우월성을 과시해야 할 것을 촉구함.
- 전국적으로 체육열풍을 일으켜 북한을 축구강국, 체육강국으로 만들 것을 강조함.
- 각급 당조직들에 대해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 강화를 통한 ‘우리식 사회주의의 사상진지’의 공고화를 촉구함.
 - 호소성이 강한 군중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3대혁명붉은 기쟁취운동을 지속 강화
 - * 제기된 과업이 방대하고 적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사상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 것이 당의 투쟁방식

*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 민족자존의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 미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지닌 선군시대의 견결한 혁명가로 육성

- 근로단체들에 대해서도 동맹원들의 사상교양사업 강화 및 사회주의경쟁과 돌격대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대중운동을 심화시켜나갈 것을 촉구함.
 - 특히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원들이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할 것을 역설

4. 군사

-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군이 전사회의 선군정치화의 전위로서의 역할을 완수할 것을 강조함.
 - 군사정치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보여야 한다며, 군대 내 기강 확립 및 이념 교육에 주력할 것을 예고함.
 - “혁명적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문화로 사회를 선도하는 본보기”가 될 것을 주문함.
-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의 남북 대치 사향을 암시하며, 전군이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투훈련을 실전과 같이 맹렬히 벌려 전투동원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역설함.
 -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 등에 대한 “즉시적이고도 무자비한 섬멸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하고 지휘관의 역량 증대 및 ‘부대지휘관리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여 군의 “전투적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군민단결을 강조하면서 선군정치를 통한 사회 단결을 강조함.
 - “관병일치, 군정배합”을 더욱 철저히 실현할 것을 주문함.
 - 이를 통해 “선군혁명로선”을 틀어쥐면서 선군정치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함.

5. 대남

- 올해의 구호로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를 제시함.
 - 2010년의 구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와 유사
 - 2010년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에서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로 바뀜으로서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극성에서 다소 후퇴
- 2010년의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도 많았고 남북관계의 개선과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으나 올해는 남북 대결상태의 해소만 제시함.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과 이행을 여전히 강조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남북 화해와 협력의 적극적인 실현을 제시함.
 -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래왕과 교류를 보장하며 협력사업을 장려”할 것을 요구

- 우리 사회 내에서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연북투쟁의 고취를 촉구한 것은 작년과 동일하나 투쟁목표는 상이함.
 - 201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 장치들”의 철폐가 목표였으나 올해는 “전쟁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정의의 애국투쟁에 총궐기”할 것과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 저지를 제시

6. 대외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입장과 의지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올해에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요 대외정책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추진할 것임을 시사함.

IV. 2011년도 부문별 전망

1. 정치

- 작년에 “특기할 정치적 대경사”로 “계속혁명의 근본담보”가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는 등,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임.
 - 김정은이 김정일·김경희를 동행하여 일선 생산현장을 빈번히 방문함으로써 ‘경공업 혁명’ 나아가 ‘경제강국 건설의 치적’을 권력세습 정당화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
- 김정일의 최고사령관 추대 20돌(2011.12.24)이 되는 연말쯤 김정은에게 원수칭호 부여와 함께 그를 최고사령관에 추대할 가능성이 있음.
 - 지난 2010.12.24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9돌 경축연회에 김정은 및 군 고위간부들과 함께 김정일이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은 그간 김정일의 ‘군 지휘 업적’을 찬양하고 군 지휘권을 점차 김정은에게 이양하기 위한 수순일 가능성이 있음.
 - 김정은 정치국 상무위원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도 가능
- 한편 최근 2년간 당·정·군 고위간부 교체에 이어 올해에도 통치조직 전반에 역동성 제고, 현대화·과학화에 대한 몰이해 교체를 명분으로 중간 간부급이상에 대한 물갈이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경제건설에서의 최첨단돌파전”, “살아움직이는 당조직”, “선군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일신”을 주장

- 올해에는 김정일과 김정은 리더십이 중복되고, 김정은의 군사적 권위 보강문제와 경제치적 쌓기가 중첩되어 권력층 내 눈치보기와 정책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돌출적 정책 표출 가능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임.
- 김정은의 ‘유일지도 체계’ 확립을 위해 당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등장하고 각종 분야에서의 김정은 세력 확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 ‘로쇠’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 ‘비사구루빠’ 활동 강화
-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강조와 함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각종 사상 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임.

2. 경제

- “전반적 범위에서, 최첨단 수준에서의 경공업 현대화”를 빌미로 2000년대 초반식의 대대적인 공장·기업소 ‘개건사업’이 재연될 것으로 보임.
 - “온 나라의 지방공업공장들을 완전히 때버리하기 위한 전군중적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주장
 -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마련과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외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 올 한해 경공업부문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강구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경공업부문의 기업과 공장의 생산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또한 다른 산업부문에서는 석탄의 증산, 전력 증산, 비료 증산 등이 집중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보임.

- 경제정책의 기초라는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경제부문에 대한 통제력 확대로 대표되는 보수화된 경제정책 기초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차원에서 시장친화적인 개혁정책이 제시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외자유치를 위한 대외개방 노력 역시 중국과의 경제협력 틀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노동당의 체제 정비가 일단락되고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 수행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증대라는 측면에서 내각의 위상은 저하되고 당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3. 사회 · 문화

- 사회 · 문화부문에서도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시 · 소설을 비롯한 예술 작품의 대량 창작 및 배포를 통해 ‘대장’ 김정은의 위상 및 권위를 높이는 등 우상화 작업 적극화
 - 다양한 조직 단위의 사상교양을 통해 후계자 김정은의 통치 능력 및 업적 과시

- 1990년대 이래 경제난의 심화, 지속으로 인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무상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등 사회주의적 복지제도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국가·사회 및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주의적 복지제도 기능의 정상화를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 및 통치 능력으로 과시
- 최근 북한사회 및 주민의식 변화를 주목하는 한국정부를 의식하여 사회 통제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남한을 비롯한 서구 사조·문물의 침투, 유입과 관련하여 주민 통제 강화
- 체제수호 및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양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지속적인 생활고와 서구사조·문물의 침투, 유입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변화 및 체제 이탈 행위 방지
- 축구를 비롯한 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위무하고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 추진할 것으로도 예상됨.

4. 군사

- 2011년에도 북한은 ‘선군혁명’의 기치 하에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의 중추로서 군사부문 역량 강화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바탕으로 후계체제의 조기정착을 시도하면서 대내적 불안 요인과 및 대외적 봉쇄 국면을 정면 돌파하려 할 것으로 예상됨.

- 미·북 협상의 진척이나 6자회담의 속개 등의 국면에서 북한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할 우려도 상존함.
 - 핵보유국 지위의 확보를 강성대국 진입의 중요 지표로 상정하고 있으며,
 - 외교적 추인이 난항을 겪을 경우, 핵무기 제조능력 공개나 핵 및 미사일 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사실상의 보유국 지위 획득에 주력할 것으로 예견됨.

-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조성된 남북 간 긴장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2011년에도 군의 ‘강철같은 군기’ 확립 및 고도의 동원 상태 유지에 진력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통해 김정은 후계구도에 대한 군부 내 불만 세력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 후계자 김정은 및 이영호, 장성택 등 후견세력의 군 장악력 강화에 활용하려 할 수 있음.

- 2010년에 후계구도 공식화와 더불어 시작된 군부 세대교체 기초를 2011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오극렬, 김영춘 등 구세력이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신세력과 충성경쟁을 벌임으로써, 북한의 대남·대미 군사적 모험주의 및 군의 정치화·급진화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킬 위험성도 있음.
 - 후계자 권위 강화의 차원에서, 조명록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정은이 추대될 가능성도 있음.

- 주민 무마책의 일환으로 군민일치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군 무력에 의한 탄압 및 공포 정치의 양면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됨.
 - 연이은 경제정책 실패 및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면서, 군민일치 운동이나 교양 사업을 통한 주민 무마책은 한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최후방인 양강도 주둔을 위해 10군단이 새로 창설된 사례에서 보이듯, 군 및 경찰 세력에 의한 주민통제 강화로 주민의 불만에 대응하는 양상이 지속·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5. 대남

- 신년 공동사설에서 드러난 한국정부에 대한 극단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예전과 같이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10월 ‘연평도 포격’ 이후 지속된 긴장 및 위기 국면으로 최소한 춘절기까지 북한은 군사적 강경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긴장완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물밑 접촉에 외형상 부응하며, 경제지원 등을 획득하기 위한 용도로 대남 화해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음.
- 선군정치 보위세력 및 군부가 주축이 된 세습후견정부의 성격상, 군사적 모험주의와 강압(Coercive)정책이 대남전략의 근간을 이룰 것이며, 국제적 고립의 탈피 및 경제지원 획득 등을 위해 대남 화해 제스처를 전술적으로 채택할 수 있음.
 - 군사력 과시 이외에 별다른 영향력 행사 수단이 부재한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 내 유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자신들의 화해 제

스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군사적 도발정책을 선제적으로 구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대남 화전양면전술의 교차 구사는 (1) 후계체제 안정도 등 북한 내부 사정, (2) 한국 국내정치의 세력판도 및 국민 여론 변화, 그리고 (3) 미·중 간 갈등과 협력 등의 국제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에 안팎의 분렬주의 세력의 악랄한 책동” 등의 언동에서 짐작되듯 후계과정 진행 중 북한 엘리트층 내부의 갈등이 있었던 듯하며, 이의 확대 재생산이 우려되거나, 주민 불만이 더욱 고조될 경우,
 - 남북 및 미·북 간 위기상황을 증폭시켜 내부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모험주의에 나설 수 있음.

- 그러나 한국 내부 및 국제적 정세가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경우, 경제적 지원 획득, 외교적 고립 탈피 등을 위해 유화적 전술을 구사할 수 있음.
 -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식량, 비료, 경공업원자재 등의 지원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
 - 10·4선언에 포함된 서해평화지대조성의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

- 우리 당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군사훈련을 전후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우리사회 내의 투쟁을 촉구하는 선전선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김정은 후계체제가 갖추어져 가는 앞으로의 상당기간 동안 북한은 대내정치적 이유로 대남 강경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있음.
 - 내부적으로 긴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치안정에 활용하고자 할 것이며, 경제적 측면에서 업적을 쌓기 어려운 김정은이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면은 군사적 저돌성이므로 돌출적인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
 - 핵을 포기하기 어려운 북한이 핵보유를 고수할 경우 내부 경제 사정은 더욱 나빠질 것인 바, 우리로 하여금 북한의 지원 요구를 수용하도록 간헐적으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위협적이고 무모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

- 대선 및 총선 국면으로 전환될 2012년을 1년 남겨둔 한국 국내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할 수 있음.
 - 전쟁 위협을 통해 “외세와의 공조는 전쟁의 길, 망국의 길”이라 선동하여 한국 내 여론 분열을 도모하고 한국 내 친북세력의 결집을 유도하여,
 -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 압박을 가하는 한편,
 - 친북 세력 및 조직을 활용하여 국민저항을 가장한 반미·반정부 성향의 “성스러운 정의의 애국투쟁”을 부추기거나,
 - 대권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유력 정치인들을 ‘선별적으로’ 초대하여 김정일과의 면담을 추진하거나 민족 간 화해를 추구할 지도자로 직간접적으로 선전하는 등 지원 전략을 펼 수도 있음.
 - 여기서 선별 공작의 대상은 “민족중시의 립장, 자주통일의 립장에 서는가 그렇지 못한가” 또는 잠재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인될 수 있는 인물 및 조직인가를 기준으로 선정될 것임을 암시하였음.

- 이러한 전술을 통해, 현 정부의 조기 레임 덕을 유발시키고, 총선 및 대선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추구할 수 있음.

6. 대외

- 핵문제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연계한 것은 6자회담 참가 의사와 이 회담의 운영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힌 것으로 분석됨.
 - 첫째, 중국의 요구사항인 6자회담 참여의지를 밝힘으로써, 중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북·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 경제지원 루트를 확보함.
 - 둘째, 6자회담에 참여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회담, 즉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위한 회담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임.
- 미국에 대하여 비난을 삼간 것은 6자회담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나 작년과 달리 미·북 간 직접 대화, 평화체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지난해 노력이 무산된 것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함.

V. 정책적 합의

- 2011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은 북한의 화전양면 모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은 선군정치와 국방력 강화 및 군사적 모험주의를 핵심으로 하여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 쌓기에 나서면서, 후견정부의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대남 강경책으로 후견정부의 주류를 이루는 선군보위세력의 내부 결속력 강화 및 주민 통제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음.
- 특히, 북한정세의 불안정성과 대남 및 대외정책의 돌출성은 후계체제의 진행과 맞물려 감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상 밖의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 경계해야 하겠음.
 - 내부 긴장조성 차원에서의 정세조작 가능성이 상존함.
- 2010년에 나타난 북한의 도발 행태와 우리의 위기상황에서의 문제점 노정을 교훈 삼아, 북한 도발의 사전 억제 및 사후 위기관리 체제를 정비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작년과 같이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북한의 국정목표가 경공업생산 증대를 통한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이고 후계체제 공고화도 절실한 바, 내부 정치·경제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동기가 증대됨.
 - 대남 관계개선, 남북화해와 협력에 대한 긍정적 표현은 자립갱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제난을 반영하는 것임.
 - 내부분문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제재와 압박의 감

소, 나아가 외부지원 기술과 재원의 확보가 요구됨.

- 한국이 원하는 방식의 개혁이나 개방은 적극 추진되지 않을 것
이지만, 경공업품 생산 강조에 따라, 부수적 효과로써 대내경제
활동 활성화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올해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의 수세적 입장을 활용하여 우리
가 남북대화를 주도하고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전쟁의 불안
감을 해소하는 계기를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작년 남북 간의 긴장악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남북대화
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내부분제로 인한 남북대화 수요가 증
대되고 있음을 반증함.
- 한반도 전쟁우려 해소 차원에서 큰 틀의 남북대화를 추진함으로
써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노력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 경우 대북정책 추진의 핵심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군
사적 도발의 원천적 봉쇄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핵화
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인 천명과 2010년도에 자행한 군사적 도발들
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설치 약속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북지원을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에 대한
합의와 이행 정도에 따르는 ‘비례성 및 상호주의’의 원칙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함.

-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남북관계 진전과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의 틀이 병행되어야 함.

- 우리 국론분열과 2012년 정국(총선, 대선)을 겨냥한 위장 평화공세와 통일전선전략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대남 전략상 도발 후에는 반드시 대화국면을 조성하여 왔음.
 - 한편 “각계층의 래왕과 접촉” 등을 요구하고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강조하는 등 민족공조와 통일문제를 내세워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북한의 대남 분열 책동에 대응하여 국민 여론의 결집과 통일 국민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현 정부와 정파나 이념을 달리 하는 세력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대북 인식에 관한 한 광범위한 초당파적 컨센서스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대결구도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 “수천대 규모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현대적 우라늄농축 공장이 정상가동”(12.29 중앙통신)을 위협하면서 “비핵화 실현 입장 불변”(1.1 신년 공동사설)임을 표방하고,
 - 대화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중 친선관계 발전” 및 “제국주의의 강권”에 맞대응을 주장하여 강온양면 전술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 미·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갈등 조장으로 외교적 실리를 추구하는 모양새를 차단

2011년도 북한 신년 공동사설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

(조선신보, 07:30)

오늘 우리는 격동하는 21세기의 첫 10년을 위대한 승리의 년대로 빛내이고 희망의 해, 새로운 번영의 해인 2011년을 맞이한다.

지난 10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고수하여온 계승의 년대였으며 강성대국에로의 위력한 도약대를 마련한 창조와 기적의 년대였다. 복잡다단한 21세기의 소용돌이속에서 우리 조국은 언제나 세계의 초점에, 반제자주의 최전선에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따라 련전련승의 영웅서사시를 창조하여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욱 휘황한 앞날에 대한 포부와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다.

지난해 주체99(2010)년은 강성번영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난 거창한 변혁의 해였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전략은 가장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전략이다. 지난해 우리의 대고조진군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작전하고 의도하신대로 추진되고 장군님께서 구상하신대로 훌륭한 결실을 가져왔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이 철의 진리가 실천으로 확증되었다.

지난해에 민족사에 특기할 정치적대경사들을 통하여 우리 당과 혁명의 양양한 전도와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되었다.

우리 인민의 드높은 정치적 열의와 세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소집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령도적 권위를 백방으로 높이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었다. 당의 위업,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근본담보가 마련된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다.

최상의 수준에서 특색있게 진행된 당창건 65돐 경축행사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일심단결의 위력과 무적필승의 군력을 세계의 면전에서 뚜렷이 보여주었다. 정세가 아무리 복잡하여도 우리의 민심은 고도로 안정되어 있었고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계 걸어가려는 군민의 의지는 백배해졌다. 백전백승의 력사와 함께 끝없이 양양한 미래를 가진 우리 당과 인민과 같이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은 세상에 없다.

지난해의 장엄한 대고조진군 속에서 빠른 시일에 인민생활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이 확고히 열려졌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으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소는 온 나라를 격동시키고 대고조격전장들마다에서 장쾌한 승리의 포성이 울리게 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공업과 화학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련관된 공업부문들에서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열려졌다. 대계도간석지, 례성강청년2호발전소를 비롯하여 수

백개의 중요대상들이 새로 일떠서고 도처에 선군시대의 희한한 선경들이 펼쳐졌다. 우리가 것처럼 바라던 강성대국의 리상을 전면적으로 꽃피울 수 있는 토대가 축성된 것은 대고조진군에서 이룩된 고귀한 성과이다.

지난해에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는 선군조선의 기상이 온 누리에 펼쳐졌다.

최첨단돌파전의 불길드높이 정보기술, 핵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혁혁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을 비롯한 인재양성의 전당들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변되었다. 군중문화예술이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고 경희극 《산울림》과 같이 사상예술성이 완벽한 문학예술작품들이 련이어 창조된 것은 사회주의문화강국인 우리 조국의 크나큰 자랑이다.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자는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이 활화산처럼 분출되고있기에 우리 조국의 미래가 끝없이 휘황찬란한 것이다.

지난해는 강성번영의 웅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령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과시된 역사적인 해였다.

지난해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은 극도로 긴장한 정세와 적들의 악랄한 제재속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당의 사상은 공격사상이며 당의 혁명방식도 공격방식이다.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민족의 존엄을 끝까지 고수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였고 전군, 전

민을 대담한 공격전으로 이끄신 장군님의 령도예술은 참으로 비범하고 령활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2010년 대고조 령도실록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행군현지지도로 수놓아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년초부터 온 한해동안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온 나라의 대고조전투장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면서 당조직들과 일군들을 발동하고 군민의 정신력이 최대로 폭발되도록 하시였다. 모진 강추위와 무더위, 폭우와 눈보라를 헤치며 불철주야의 현지도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따라 혼연일체의 천만대오가 일떠서고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랐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차례의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 혁명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 력사적인 장정이였다.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력사의 리정표를 따라 드팀없이 전진하리라는 것, 이것이 보람찬 지난해 투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깊이 새긴 신념이다. 21세기의 새로운 년대들도 로속하고 세련된 김정일정치 위대한 승리의 년대로 계속 빛날 것이다.

새해 주체100(2011)년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가야 합니다.》

존엄높은 김일성조선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중대한 국면에 들어섰다.

다음해에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개척자이시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은 추호도 어길수 없는 당의 강령과 같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을 드세차게 벌려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해내는 영웅적인민이며 자기의 숭고한 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는 사소한 답보도 모르는 백절불굴의 인민이다. 세계는 지금 원대한 포부를 안고 룡성번영하는 불패의 대강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떤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다.

올해의 총공격전은 거창한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당의 웅대한 인민생활전략을 실현하는 길에서 우리는 큰 걸음을 내디디었다. 우리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켜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강성대국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투철한 립장이다. 인민들이 만복을 누리는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돌진하는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산울림, 총공세의 산울림이 온 나라에 메아리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새해의 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이다.

지금 우리에게서 경공업혁명을 뒤받침해주는 힘있는 기간공업이 있고 강력한 과학기술력량이 있으며 겹쌓인 시련속에서 경공업을 상승궤도에 올려세운 귀중한 투쟁경험도 있다. 경공업에 더 큰 박차를 가하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의 성숙된 요구로,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 있다.

오늘 경공업을 대하는 립장은 인민에 대한 태도, 당을 받드는 자세, 혁명에 대한 관점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경공업의 해인 올해에 경공업부문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총력을 집중하는 일대 선풍이 온 나라에 휘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커다란 품을 들여 일떠세운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 새 세기 표본으로 되는 훌륭한 소비품생산기지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고귀한 재부이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당의 뜨거운 은정이 깃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1차소비품을 비롯하여 인민생활에 널리 쓰이는 필수품생산에 힘을 집중하면서 전반적소비품생산을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 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인민에 대한 존중이 있고 애국심이 있다. 하나의 경공업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기상품,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대중의 다양한 수요와 기호에 맞게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여나가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공업현대화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반적범위에서, 보통수준이 아니라 최첨단수준에서 먼 앞날을 내다보며 전망성있게 추진시켜나 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구상이다. 경공업부문의 현대화를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씩하나씩 실속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현대화, CNC화된 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해나가야 한다.

지방공업이 나라의 소비품생산에서 차지하는 몫은 대단히 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성땅에 지펴주신 지방공업혁명의 봉화따라 온 나라의 지방공업공장들을 완전히 때벗이하기 위한 전군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회령과 강계에서처럼 자기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며 자체의 원료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지방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야 한다.

경공업에 대한 전사회적, 전국가적관심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 당의 경공업증시정책의 요구에 맞게 이 부문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와 자금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원료, 자재생산을 주체화,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에 커다란 힘을 돌려야 한다. 경공업혁명에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가능한 모든 단위들에서 생활필수품생산을 부쩍 늘여야 한다. 당의 인민적시책이 은이 나게 상품공급사업과 급양봉사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진군은 경제전선전반에서 일대 공세를 벌릴것을 요구한다.

지금 우리 당은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김철의 영웅적로동계급처럼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밑불이 될것을 바라고있다.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때, 김철의 실천력으로 대고조의 승리를 안아오자, 이것이 우리 당의 부름이다.

석탄이 팡팡 나와야 비료와 섬유도 쏟아지고 전기와 강재도 나온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탄광들에 힘을 집중하고 새 탄밭들을 개발하여 석탄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온 나라가 석탄전선을 자기 일처럼 도와주어 탄부들의 전투적 사기를 더욱 높여주어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설비들의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고 송배전체계를 개선완비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금속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한 대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높이 세운 철강재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

여야 한다. 철도는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다. 증송투쟁의 불길을 높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전반적수송수요를 원만히 풀며 온 나라가 떨쳐나서 철길을 결정적으로 개명하여야 한다.

경공업혁명은 곧 화학혁명이다. 이미 개건된 함흥과 남흥, 순천지구의 대규모화학공업기지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섬유와 수지, 각종 기초화학제품들, 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보장해주어야 한다.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다. 우리는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는것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는 본보기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알곡 정보당수 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농촌지원에서 혁명을 일으킬것을 호소하고있다.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물자들을 영농공정에 앞세워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선군대고조시대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그 어느때보다 거창하게 일떠서는 벽찬 시기이다. 희천발전소건설, 흥남가스화대상공사,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

을 최대한으로 다그쳐 끝내야 한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숭고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건재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현대적인 건재생산기지를 꾸리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제건설전반에서 대고조진군속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최첨단돌파전을 계속 심화시켜나가는것이다.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쥐 경험에 토대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도달한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내에 뛰어넘어 지식경제시대의 전열에 서자는것이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이다. 최첨단돌파전의 선봉에서 내달리고있는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기계공업뿐만아니라 전반적공업부문에서, 중앙공업뿐만아니라 지방공업에서도 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게 하여야 한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과학기술경쟁에서 남들을 압도하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최첨단돌파의 포성으로 적들의 과학기술적봉쇄를 짓밟개버리겠다는 자신만만한 배짱이 우리의 심장속에 펄펄 끓어번져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두뇌전, 기술전을 맹렬하게 벌려 경공업혁명과 인민경제 발전을 위한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으며 누구나 다 대중적기술 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일떠세운 창조물이 기초도 든든하고 실리도 크며 전망도 확고하다.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

한 대계도간석지건설자들처럼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완강하게 돌진하는 자력갱생의 강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원료도 해결하고 자금도 확보해나가야 한다.

경제관리를 개선하는것은 인민경제가 활성화되고있는 오늘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실리있게 하며 모든 단위에서 계획규률, 재정규률, 노동행정규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나라의 전반적면모를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넓고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혁명적으로 개변시켜나가는 사람이 참다운 강성대국건설자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인재대국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사상적대,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현실에 발을 붙인 시대의 걸작, 사회주의교양의 교과서와 같은 명작들이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한다. 보건부문 일군들은 인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에서 지극한 정성을 발휘하고 의학과학을 발전시켜 사회주의무상치료제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을 명성 높은 축구강국, 체육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은 국토관리와 도시경영

을 비롯하여 조국산천을 아름답게 변모시키는 사업에서 발현된다. 원림, 산림조성을 전망성있게 과학적으로 밀고나가며 자기 고향, 자기 일터를 사회주의선경도시, 선경마을로 만들어야 한다. 전국이 달라붙어 도로혁명을 다그쳐야 한다. 도시설계와 건설을 매개 지방의 특성과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우리 식으로 독특하게 해나가야 한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록음이 우거지고 공해를 모르는 도시, 웅장화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꾸려나가야 한다.

올해의 총진군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이다.

올해는 당대표자회가 있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보람찬 해이다.

당대표자회정신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을 변함없이 옹위해나가려는 일심단결의 정신이며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뚫고 룡성번영하는 강국을 건설하자는 불굴의 강행군정신이며 위대한 당을 받들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계속혁명의 정신이다. 현시기 우리 당건설과 활동은 이 정신을 출발점으로 하여 전개되어야 하며 그것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정치와 군사,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당의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전당을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령도자의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결사관철의 전위대오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

우리 당은 모든 당조직들이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힘있는 당조직, 살아움직이는 당조직이 될것을 바라고있다. 당조직과 행정의 일심동체가 되어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 기풍, 모든 경제사업을 정치사업방법으로 밀고나가는 원칙이 당사업에 철저히 구현되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대로 민심을 틀어쥐고 그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심화시켜나가며 인민들의 생활상문제들을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한다.

제기된 과업이 방대하고 적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사상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투쟁방식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 일관성있게 강도높이 벌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 민족자존의 정신, 자력갱생의 정신, 미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지닌 선군시대의 견결한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 호소성이 강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계속 힘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군대의 전투적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오늘 주체의 군건설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인민군대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0돛과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발단 15돛이 되는 올해에 위대한 선군령장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모든 군사정치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인민군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야 한다.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령군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당정치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오늘의 훈련은 래일의 전투영웅을 키우는 용광로이다. 전군이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투훈련을 실전과 같이 맹렬히 벌려 모든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우리 당의 선군의지를 총대로 받들어나가는 만능의 지휘관, 일당백의 펄펄 나는 싸움군으로 믿음직하게 준비시켜야 한다.

중대강화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부대지휘관리를 개선하며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여 최정예혁명강군의 전투적기상과 면모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전군이 하나의 동지가 되자는 구호높이 관병일치, 군정배합을 더욱 철저히 실현하고 언제나 주동이 되어 군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대는 주체적인 전쟁관점과 멸적의 투지를 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여야 한다.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닮은 인민군대의 정신은 백두의 공격정신이며 정의의 대응방식은 즉시적이고도 무자비한 섬멸전이다. 인민군대는 우리의 절대적인 존엄과 사회주의제도,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무적의 총대로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역사적사명을 기어이 수행할것이다.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답게 기발을 들고 질풍같이 내달려야 온 사회가 약동하고 대고조기상으로 들끓는다. 인민군대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며 혁명적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문화로 사회를 선도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국방공업은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원천이며 인민생활향상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국방공업부문은 앞으로도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 경제전반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선군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일신시켜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하자!》, 이것이 우리의 좌우명이다. 우리 수령님처럼 뜻이 원대하고 리상이 높게, 수령님처럼 배심이 세고 락관에 넘쳐 투쟁해나가야 한다. 남들이 못한다는것도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불굴의 기질, 무엇을 하나 창조해도 세계를 들었다놓게 하는 담대한 기상, 모든 일을 후대들이 덕을 볼수 있게 완전무결하게 해놓는 혁명적일본새로 대고조시대의 순간순간을 빛내여나가야 한다.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성과여부는 지휘성원들,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일군들은 당정책을 지지만 하는것이 아니라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실천가, 당에서 준 과업을 가장 훌륭하게, 가장 성실하게, 가장 진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집행하는 결사관철의 투사가 되어야 한다. 3월5일청년광산의 일군들처럼 전망목표를 높이 세우고 방법론있게 모든

것을 작전하여 자기 단위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누구나 자기 도, 자기 군, 자기 마을, 자기 일터에 대한 끝없는 애착을 가지고 아름다운 리상을 끝까지 꽃피워나가야 한다.

활력있는 청년대군은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주역이다. 청년들은 강성대국건설의 격전장들마다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선군시대 청년들의 심장마다에는 조국의 큰 짐도 모두 걸머지고 최첨단의 패권도 다 쥐겠다는 드높은 포부와 열정이 차넘쳐야 한다.

근로단체들에서는 동맹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화력을 집중하며 사회주의경쟁과 돌격대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지난해에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힘차게 전진하였다.

북과 남, 해외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30돐을 뜻깊게 기념함으로써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망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의지는 세월이 흐르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지난해 남조선보수당국은 전쟁하수인, 반통일대결광신자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모략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민족의 화합을 파탄시킨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광란은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

아냈다.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속에서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억제되고 북남사이에 일련의 인도주의적사업들이 진행된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애국애족의 선군정치와 인내성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야 할 희망의 시대, 통일과 번영의 시대이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사활적인 과업은 없다. 민족중시의 립장, 자주통일의 립장에 서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우리는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는 반통일적인 동족 대결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통일에 역행하는 반공화국모략책동과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여야 한다.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이 터지면 핵참화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온 민족이 전쟁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정의의 애국투쟁에 총궐기해나서야 한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은 저지되어야 한다. 외세와의 공조는 전쟁의 길, 망국의 길이다. 온 민족은 외세에 명줄을 걸고 그와 야합하여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는 친미호전분자들의 범죄적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래왕과 교류를 보장하며 협력사업을 장려하여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은 온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며 민족번영의 리정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북남공동선언과 그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밝은 전도가 있다.

지난해에 국제무대에서 벌어진 사태는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더는 통할수 없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승리의 길을 개척해온 우리 당의 위업은 오늘 더욱 왕성한 생기와 활력에 넘쳐 승승장구하고있다.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를 총화하는 오늘처럼 민족의 존엄이 높이 떨쳐지고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미래에 대한 신심이 뜨겁게 용솟음친 때는 없었다.

승리의 대문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혁명의 총진군에 련속적인 박차를 가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호소는 남들이 걸어온 단계를 단숨에 뛰어넘어 세계에 솟구쳐오르려는 대혁신의 기치이며 우리 대에 위대한 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념원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애국충정의 기치이다. 우리는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하며 억세계 전진해나갈 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신심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나가자. (끝)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통일정세분석 2011-01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서울 강북구 419길(수유6동) 275 전화 : 02-901-2525 팩스 : 02-901-2544
인쇄처	(주)세원문화사 전화 : 02-2265-1141
인쇄일	2011년 1월
발행일	2011년 1월



서울 강북구 4·19길 275
전화 : 900-4300(代)